

도, IOC 대응 전략 마련 착수

하계올림픽 유치 위해... 서울 소재 스포츠 기획 업체 '모노플레이인' 과 용역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전북특별자치도 조영식 전주하계올림픽추진단장은 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전주 하계올림픽, 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 및 IOC 개최도시 선정 대응 용역으로 이번 용역에 선정된 업체는 서울 소재 스포츠 기획 전문업체 (주)모노플레이인이 맡았다.

모노플레이인은 국제 스포츠 유치 운영 마케팅과 컨설팅을 주로 하는 기업으로 굵직한 국제 스포츠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조 단장은 이 업체의 전문성과 경험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용역을 2026년 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올림픽 유치 전략 마련, 하계올림픽, 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 정부 및 IOC 심사자료 작성, 경기 비경기 시설 자료 제작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와 협의를 이어가며, 경기장 배치와 시설 구성안 등을 조율 중이다.



7일 오전 조영식 전북특별자치도 전주하계올림픽추진단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 국회 의원연맹, 친선협회 등과 논의를 시작했다.

조 단장은 "조만간 국회를 직접 방문해 의원 및 보좌진들과 협의하고, 도지사 일정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현재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로드맵'도 작성 중이며, 빠르면

다음 주 중 기자단과 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는 단순 개최가 아닌 지역 성장의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며, "전주와 세계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민의식과 전통문화의 우수함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민과 국민 모두의 지지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장수군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장수 와룡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열린 '장수트레일레이스 시즌투어 I STAGE 100K'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진=장수군청 제공)

트레일레이스 100마일 코스 일부 돌아보기

2025 장수트레일레이스 시즌투어 I STAGE 100K 성료

장수군, 트레일 러닝 명소 입지 다지기 위한 준비 박차

장수군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장수 와룡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열린 '장수트레일레이스 시즌투어 I STAGE 100K'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즌투어는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제6회 장수트레일레이스' 100마일 코스 일부를 돌아볼 수 있는 트레일 여행 투어로, 국내 팀 스키트와 선수와 해외 태국 아디다스 선수, 동호인들을 포함해 약 30여명이 참여했다.

2일에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트레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트레

일투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본격적으로 3일부터 5일까지 실제 레이스 코스를 나누어 트레일 투어를 진행했다.

첫째날은 무룡고개~육십령~서봉~토목동계곡구간(27Km), 둘째날은 토목동계곡~침령산성~싸리재(37Km), 마지막 날은 신전·장안임도~장안산~활공장~장수종합경기장(36Km)을 끝으로 트레일 투어가 마무리됐다.

행사를 주최한 락앤런 김영록 대표는 "이번 투어를 통해 '제6회 장수트

레일레이스' 100마일 코스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엿보았고, 참가자 여러분의 열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100마일 코스뿐 아니라 다른 코스들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트레일레이스에 관심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시즌투어를 계기로 오는 9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은 오는 8월 '제2회 장수 컬밸리 트레일레이스', 9월에는 본 대회인 '제6회 장수트레일레이스'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트레일 러닝의 명소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수=고관호기자

"드론축구 월드컵, 국제대회 개최 역량 입증 시험대"

강태창 도의원, "전 세계 스포츠 커뮤니티에 인상 남길 기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은 7일 제41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오는 9월 전주에서 열리는 '전주드론축구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드론축구는 전주에서 세계 최초로 창안된 융복합 스포츠로, 이미 국제표준화와 산업화 기반을 갖춘 미래형 콘텐츠"라며, "이번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전북이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하는 시험대이자, 전 세계 스포츠 커뮤니티에 강한 인상을 남기는 기



회"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도시로서 전북은 세계 각국과 경쟁 중인 상황이며, 이번 월드컵의 성공은 국제사회에 전북의 준비된 역량을 선보이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강 의원은 대회의 준비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참가국 유치, 경기장 정비, 조지위원회 구성, 예산 확보 등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지만, "이러한 준비와 도전의

과정 자체가 올림픽 유치라는 더 큰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값진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 기업의 드론축구 장비가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며,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태창 의원은 "전북은 더 이상 주변에 머무를 수 없다. 전주 드론축구 월드컵은 전북이 세계와 연결되는 플랫폼이자, 올림픽 유치라는 대업을 향한 신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도와 시가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성공적인 대회를 치러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전국 검객들, 익산서 기량 겨룬다

대통령기 전국검도선수권, 8~11일 개최

익산시에서 전국 검도 선수들이 모여 무술의 정신과 기량을 겨룬다.

익산시는 '대통령기 제47회 전국검도선수권대회'가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대한검도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검도회와 익산시검도회가 공동 주관한다.

대회가 열리는 4일간 17개 시도, 119개 팀에서 참가한 검도 선수 1,200여

명이 개인전 및 단체전 경기로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전국에서 모인 우수한 선수들의 열정적인 경기를 관람할 수 있어, 시민과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지난해 익산에서 열린 '제5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학생검도대회'에 이어 규모가 한층 확대된 대통령기 대회를 유치함에 따라 스포츠 도시 익산의 위상을 알리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대통령기 검도선수권대회를 계기로 검도 종목의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가자와 관람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5월 한 달 동안 △제4회 전국장애인펜싱선수권대회(9~11일) △제4회 익산캘린지 아쿠아슬론 챔피언십 시리즈대회(19~20일) △제2회 백제왕도익산 전국오픈타구대회(24~25일) 등 다양한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해 스포츠 도시의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미래진안 건강도시, 자연치유 녹색도시, 생활 속 행복도시



